

사회

# 전과 14범에 운전대 맡긴 택시회사

## 출소 1년밖에 안됐는데 검증없이 고용...범죄 발생 우려

### 전과자 택시기사 여성 성폭행후 금품 갈취

출소한 지 1년밖에 안된 특수감도 등 전과 14범의 4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택시업계의 불경기 속에 택시 운전사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전과자는 물론 운전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하고 있어 '에고된 사건'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택시자격증을 취득하고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차량 관련 범죄가 아닌 이상 형기를 마친후 2년이 지나면 택시를 몰 수 있

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광안경찰은 17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택시기사 강모(47)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10일 낮 12시에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한 다세대주택 2층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A(여·26)씨를 결박하고 성폭행한 뒤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전과 14범으

로 지난해 11월 출소, 지난 5월부터 택시 운전중 하면서 평소 A씨 집 인근을 돌며 범행대상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씨는 경찰에서 처음에 "A씨를 승객으로 태워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말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택시를 운전할 수 있게 돼 있어 강씨와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버젓이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형 집행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라도 사실을 숨기고 택시를 운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차량을 이용한 범죄와 음주와 같은 도로교통특례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출소 후 곧바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허점도 있다.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택시 운전사로 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직업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논란 때문에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취업준비생인 이모(여·26)씨는 "늦은 밤이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지만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소외계층에 보낼 사랑의 김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원과 하나은행 호남영업본부 임직원 등 100명은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매곡동 지사 앞마당에서 소외계층 1100가구에 전달할 사랑의 김치를 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檢, 광주 핵심사업에 칼날 겨누나

## 총인시설 비리 의혹·화정주공 재건축조합 수사 본격 착수

검찰이 사업비 982억원에 이르는 광주시 총인시설사업 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들 모두 광주시의 핵심사업이어서 수사 결과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시 총인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요약본과 관련 이를 검찰에 전달할 참

어자치 21 관계자에 대해 추가조사한 데 이어 18일에는 녹취록에 등장한 반모 서기관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녹취록과 요약본의 내용에 '상당한 과리'가 있어 요약본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조사하고 있다.

또 총인시설 시공사 선정과정 전 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는 물론 반씨와 업체 관계자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녹취록이 만들어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녹취록 요약본에는 사전밀약을 의심하게 하거나 약속한 금품을 재촉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담겨 있지만, 실제 녹취록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에 의뢰해 녹음파일의 소음을 제거하고 대화내용을 검토했지만 요약본과 전혀 의미가 다른 표현도 있었다"며 "사건 관련자

들을 불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녹취록과 요약본을 넘긴 참여자 21 관계자는 "검찰 수사 관련 필요한 추가자료를 더 전달했다"며 "언론에 공개된 요약본의 내용과 검찰에 전달한 녹취록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실제 녹취록에 담긴 내용에서 비리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지, 대화 참석자들이 업체 선정과 관련 사전논의를 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관련 추가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검토를 끝내고 관련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조합장 개인 비리와 운영자금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총학회장 성추행 진실 공방

"한방에서 술 취해 잡든 남녀 대학생의 성추행 논란,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7일 접수된 '광주 모 사립대 총학생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광주일보 11월 10일자 6면)는 고소사건과 관련,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총학생회장은 연말 총학생회

방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는 그 방에 남았고, 총학생회장 A씨는 D씨가 있는 옆방으로 가서 그 옆에 누웠다.

D씨는 A씨가 들어오자 잠시 방을 나갔고, 지인에게 당시 상황을 전화로 얘기했다. 하지만 "피곤하니 잠이나 자자"는 A씨 말에 침대에 다시 누웠다.

여기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D씨는 "술에 취해 누워 있는데, A씨가 자신의 옷 속으

### 총학회장 "연말 선거 앞두고 음해"

### 고소인 "술취해 누워있는데 만졌다"

선거를 앞둔 '음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진술하며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6일 새벽 3시 피고소인인 총학생회장 A(24)씨는 알고 지내던 30대 광고업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총학 간부인 C(여·21)씨와 C씨의 친구로 고소인인 D(여·21)씨와 합석했다.

이들은 새벽 4시 광주 상무지구 한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잠시후 고소인을 치기 위해 모텔로 갔다. 모텔 방 2개를 잡고, 한 방에 모여 고소인을 치다가 C씨는 그곳에서 잠들었고, D씨는 옆

로 손을 넣어 온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하지말라고 저항했고, 술기운에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는 D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D씨 지인의 신고로 새벽 5시30분 경찰이 현장에 나타났다. 이때 D씨는 잠든 상태였으며, A씨는 "아무 일 없다"고 경찰에게 말한 뒤 다시 잠이 들었다.

이행들은 오전 8시에 함께 모텔을 나왔으나 D씨는 성추행 사실을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 알리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혼성 도박 경찰관 내부 징계 적법"

### 광주지법

현직 경찰관이 혼성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내부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성원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경찰관 박모(54) 경위와 김모(48) 경사가 광주지방법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3개월 및 강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이 고소통 도박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배자가 포함된 가정주부 등과 어울려 폐쇄된 원

룸에서 고소통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의 비위사실이 다수의 언론매체에 보도돼 전체 경찰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 등을 크게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경위와 김 경사는 지난 3월2일 오후 9시에 광주 서구 농성동 모 원룸에서 도박전과 5명으로 절도죄로 수배 중인 여성 등 가정주부 4명과 판돈 49만2000원을 놓고 1점당 500원의 고소통 도박을 하다 적발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각각 징계 3개월과 강등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사업 실패 했다고...

### 부녀자 흥기 위험 금품 갈취 30대 붙잡혀

광주서부경찰은 17일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귀가하는 부녀자를 흥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조모(34)씨를 특수감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 아파트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유모(여·35)씨를 흥기로 위협해 휴대전

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사업 실패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자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4차례 사전 답사를 통해 항상 같은 시간대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유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나원침 (841) 김종두



### 최성수씨 부부 상대

### 인순이, 사기혐의 고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만준 부장검사)는 가수 인순이(52)가 종경가수 최성수(51)씨 부부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순이는 최근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의 부인 박모씨가 시행자인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혹석 마크힐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측은 그러나 "양측의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며 "이자도 다 졌고, 합의서도 작성했다"며 인순이 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최씨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최씨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필요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 주민·해경 합동작전 전북 절도범 검거

○진도군 무주도 해상 일대 전북 양식장에서 전복을 훔치던 절도범들이 해안경계작전 중이던 육군 31사단 예하 진도대대에 포착된 뒤 지역주민, 해양경찰 등의 합동추적작전 끝에 검거.

○17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16일 밤 9시50분께 해안경계작전을 펼치던 진도대대가 전북양식장으로 접근하던 수상한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상급 및 인접부대, 해경,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해안 지킴이에게 연락해 한밤중 대대적인 작전이 펼쳐진 것.

○전복을 훔치려던 선박은 해경과 어선이 쫓아오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1시간여 만에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치기 위해 진도군 의신면 초사포구로 접근했다가 도주중에 매복하고 있던 31사단 5분대기초에 붙잡혀 해경에 인계.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예약접수 중

#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12월1일

##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과]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림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역대**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